

[POP & ROCK]

가스펠 메탈(Gospel Metal)

크리스천 록(Christian Rock)이라고도 하며 음악을 통해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다. 블랙메탈과는 정반대의 장르라 할 수 있다.

ex)스트라이퍼(Stryper), 빌리버(Believer)

갱스터 랩(Gangster Rap)

갱스터 랩은 90년대 초부터 힙합의 대표격이 된 랩 뮤직인데. 과격하고 폭력적이지만, 초기엔 직설적일 뿐 그리 험하지만은 않은 음악이었다. 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2PAK의 피살사건으로 갱스터랩은 사그러들기 시작했다. 갱스터랩의 특징은, 느리며 가사를 또박또박 읽는 형태이고 하우스뮤직과 결합된 것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끈 갱스터 랩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Come Back Home' H.O.T의 '전사의 후예' 등이 있다.

ex)2PAK

경음악

고고(Go Go)

1960년대 중기에 크게 유행한 댄스 뮤직 또는 댄스의 총칭으로 써 트위스트, 몽키, 스윙, 림고등을 고고라한다.

고딕록

영국 특유의 록 장르이며 과거의 것이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아직 많은 팬층을 지니고 있다. 종교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장르이기도 하다. 특징으로는 어둡고 무거운 음영을 드러내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으며, 노래의 테마도 종교적인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현재 Nine Inch Nails와 같은 인더스트리얼계에서 인기가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

ex)Bauhaus, Siousie And The Bunshes, Death In June, Sisters Of Mercy, Cult, The Mission, 줄리안 레간

광고음악(Commercial Message Song)

CM송. 20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반복효과 다른패턴(인쇄, 필름)과의 조화 그리고 많은 내용을 함축성있게 전달해야하는 특수성을 안고있다.

광시곡(Rhapsody)

영웅적 민족적 색채가 짙은 자유로운 하모니. 판타지.

그라인드코어(Grindcore)

데스 메탈의 하위 장르로 취급되는 그라인드코어는 지칠 줄 모르는 무서운 스피드와 광폭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으로 `초 스피드 매니아'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는 저돌적이며 쉽 없는 비트를 쏟아낸다.

ex)네이팜 데스(Napalm Death), 테러라이즈(Terrorizer), 브루탈트루쓰(Brutal Truth)

글램 록/메탈(Glam Rock/Metal)

'Glamorous Rock'의 준말. 화려한 의상, 여성보다 더 요염한 분장과 자태로 한몫을 하는 뮤지션들의 음악을 가리킨다. 팝적이면서도 헤비한 음악을 하였던 이들은 오늘날 L.A. 메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요즘은 음악적 성향보다는 얼마만큼 분장에 공을 들였나(?)에 따라 이 장르에 소속되는 셈이다.

ex)엑스-제팬(X-Japan), T-REX의 마크 볼란, 젊은날의 데이빗 보위, Hanoi Rocks, 초기의 머틀리크루(Mtley Cre), 초기 포지션(Poison)

네오 클래식 퓨전 (Neo Classical Fusion)

바로크 메탈의 클래식 어프로치에 의한 속주에서 출발해서, 바로크적인 모드에만 국한을 두지 않고 타 장르를 섞어 록 기타의 표현범위를 넓히는데 크게 일조했다. 초고속 기타 솔로 플레이와 키보드 애드립 등 철저한 애드립 지향의 개인기가 강조되는 것이며, 스케일과 모드 플레이즈 중심의 솔로를 펼치므로 아카데미 하고 고급 두뇌파 플레이어들의 음악이라 할 수 있다.

ex)토니매칼파인(Tony MacAlpine), 비니 무어(Vinnie Moore), 조이 타폴라(Joe Taffala)

네오 펑크(Neo Punk)

70년대에 영국에서 붐을 이루었던 펑크의 90년대판 스타일.

ex)뉴에로틱 아웃사이드스(Neurotic Outsiders), 애쉬(Ash), 그린데이(Green Day)

뉴 로맨틱스(New Romantics)

60년대 초반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상류층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패션으로 발달된 장르이다. 그 후 Spandau Ballet 가 인기를 끄는 동안 영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18세기의 댄디나 공립 학교 학생들처럼 보일 정도로 이 장르의 인기는 대단했다. 깔끔하고 귀족적인 외모와 낭만적인 멜로디, 퇴폐적인 분위기로 한 시대를 풍미 했었다.

ex)에이 비 씨(ABC), 듀란 듀란(Duran Duran), 재팬(Japan)

뉴 에이지(New Age)

섬세한 음과 서정성적인 인간의 내면 심리를 음악으로서 치유 또는 감동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명상음악의 한 종류이다. 주로 자연회귀와 참선을 강조하는 '동양철학'이 짙게 녹아들어 있는데 이 점때문에 기독교 일각에서 '악마의 음악', '인간을 혼미 시키는 반그리스도 음악'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요즘은 본질에 대한 논란으로 NEW AGE라는 말을 일부러 잘 안쓰고, 또 재즈, 클래식과 결합되어 다양하게 변화되었기에 장르를 애써 구분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

ex)조지윈스턴(George Winston), 케니 지(Kenny G), 야니(Yanni), 기타로, 소지로, 엔야

뉴 웨이브(New Wave)

70년대 말 한창 득세하고 있던 펑크는 그 과격함과 무례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 받기 시작하였고, 세상은 펑크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는 달리 많이 변했다. 사람들은 좀더 살기 좋아짐에 따라 듣기 좋은 것을 찾기 시작했고 그런 취향에 편승해서 아름답고 편안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밴드들이 등장했다.

ex)XTC, 낙(The Knack)

NWOBHM

New Wave Of British Heavy Metal. 이 약성어는 펑크의 기류가 쇠퇴함에 따라 79년부터 81년 까지 하드록과 헤비메탈을 다시 전하기위해 받아들여졌다. 일반적으로 트윈기타 어프로치와 업템포의 넘버들로 특징을 이루는데, 음악 자체는 헤비메탈의 '첫번째 흐름'에서의 열망을 그려낸다. 이

새로운 토대에서, 그 움직임은 하부 장르의 과잉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다양해졌다.
ex)다이아몬드 헤드(Diamond Head), 아이언 메이든(Iron Maiden), 데프 레퍼드(Def Leppard), Saxon

덱(Dub)

80년대 레게 음악과 트립 합의 중간쯤 되는 장르로 살인과 같은 세상의 여러 추악함을 잊게 해 준다. 이 분야의 음악이 긍정적으로 적용할 때는 듣는 이의 머리 속을 재 정리할 수 있게 하지만 부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한다.
ex)Tortois

데스 메탈(Death Metal)

트래쉬 메탈이 더욱 극단화된 장르이다. 죽음이나 파괴, 악마찬양을 주요 소재로 하며 거의 소음에 가까운 초과격 한 사운드에 멜로디 없는 구토식 보컬, 끔찍한 앨범자켓 등이 특징이다.
ex)카니발콕스(Cannibal Corpse), 모비드엔젤(Morbid Angel), 카케이스(Carcass), 디어사이드(Deicide),바소리(Bathory), 데스(Death)

둠 메탈(Doom Metal)

데스 메탈에서 세분화 된 장르로 데스와 다른점은 스피드가 느리나 사운드는 더욱 헤비하며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ex)캔들머스(Candlemass), 커세드럴(Cathedral), 파라다이스 로스트(Para-dise Lost), 마이 다잉 브라이드(My Dying Bride)

드림 팝(Dream Pop)

슈게이징(Shoegazing)의 다른 이름 이 장르는 몽롱한 분위기와 퇴폐적인 나른함을 특징으로 한다. 노이즈와 멜로디의 결합이라는 말로 설명된다.
ex)My Blood Valentine

드립 락(Drip Rock)

이 장르의 음악에는 여러가지가 복합되어져 있지만 대체적으로 싱어로 꽉 채운 듯한 음악과 로맨틱스럽게 꾸민 듯한 풍이 얹혀 있는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ex)Stephen 'Tin Tin' Duppy, Prefab Sprout, Felt, Aztec Camera

디스코(Disco)

70년대 중반을 강타했던 댄스뮤직.

라운지 뮤직

라운지 뮤직은 예전의 팝/록 사운드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제시켜온 영화음악과 이지 리스닝, 또한 실험성을 지녔으나 예전에 이미 먼저 시도되었기 때문에 떠밀려나간 전자음악, 그러한 비록적인 음악이 현재 팝/록 역사권의 붕괴/변혁과 함께 재평가 되고 있는데 90년대 중반에 융성하는 동향은 바꾸어 말하자면 흑인 음악을 뿌리로 지닌 로큰롤로부터 그리고 흑인 음악에의 컴플렉스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포지티브한 시도인 것이다.
ex)에스 퀴벨, 빅 리브스, Monty,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 영화음악, 존 지로다의 "Space Age Soul", 미키 플라워스 팝스의 "Groovy Place", 젠틀 피플의 "Sound Track For Revank", 네이키드 핑크의 "Valium", 제이크 슬라징거의 "Grove Beat, Ja"

라이어트 걸(Riot Girl)

맹렬 여성 붐과 때를 같이한 페미니즘을 한단계 발전시킨 장르이다. 공격적이고 남자들을 능가하는 펑크에 기반을 둔 강력한 음악이 이들의 특징이다.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불안을 대변한 장르로써 음악잡지의 평이나 그 밖의 모든 구속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 음악의 한 사조이다.

ex)홀(Hole), Seven Years Bitch, Babes In Toyland

랩(Rap)

랩은 리듬감이 발달된 흑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그 많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서 실재론 역사가 오래된다. 블루스나 재즈로서 깊게 설움을 삭이던 흑인들이 음이 없는 그저 말에다 리듬을 실어 표현을 시작한 것이 지금의 랩니다. 테크노 뮤직 전반에 새로운 리듬 군을 형성하는데 큰 몫을 한 것은 랩의 가장 큰 음악적인 결실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시작으로 랩음악이 대중화 되기 시작하여 노래의 간주부분에 랩을 삽입하는 식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ex) Run D.M.C, LL Cool J, 비스티 보이즈(Beastie Boys), 바닐라 아이스(Vanilla Ice)

랩소디(Rhapsody)

광시곡. 영웅적 민족적 색채가 짙은 자유로운 하모니. 판타지.

레게(Reggae)

흑인이90%, 백인이10% 정도의 비율이면서도 흑인이 피 지배인이 된 자메이카에서 백인 지배층에 대한 저항음악으로 발전되어 온 것을 BOB MARLEY가 집대성한 장르이다. 미국 및 세계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같은 맥락과 메시지를 담은 펑크, 랩과 결합되는 경향도 보일만큼 레게는 강한 저항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아프터 비트를 사용하고, 퍼커션 사용이 두드러진다. R&B의 진한 내음과 스카의 흥겨운 리듬이 바탕에 깔리면서 60년대 중반 완성되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확산된 레게는 본질이 생략된 레게 리듬만 차용한 음악이 되어 있다.

ex)UB40, 이글스(EAGLES)의 'HOTEL CALIFORNIA', 에릭 클랩튼(ERIC CLAPTON)의 'I SHOT THE SHERIFF', PAUL SIMON의 'MOTHER AND CHILD REUNION', 빅 마운틴(BIG MOUNTAIN)의 'BABY I LOVE YOUR WAY'

레트로 락(Retro Rock)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의 요소들이 모인 사조이다. 이 용어는 롤링 스톤즈, 모트 더 후플, 페이스, 킹크스, 애니멀스, 야드버드의 음악에서 그들의 주된 근원적 열망을 끌어내려는 그룹들에게 적용된다. 사운드는 전체적으로 현대적인 장비의 이점과 함께 재생되었다.

ex)Black Crowes, Quireboys, Crybabys, Thunder

로모(Romo)

글램 록과 나르시즘, 뉴 웨이브 등으로 치장하고 싸구려 신시사이저와 값싼 립스틱에 대한 향수 등으로 그 속에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다. 짙은 화장과 성을 종잡을 수 없는 외모등은 이들의 커다란 특징이다. 대표 밴드로는

ex)Orlando, Hollywood

로카빌리(Rockabilly)

힐빌리나 컨트리 음악적인 요소를 지닌 로큰롤의 일종이다. 많은 당대의 록 음악의 활동은 블루스, 힙크, 재즈, 펑크나 메탈과 같은 다른 영역에 영향받은 로커빌리를 통합한다.

ex)Cramps, Stray Cate, Matchbox, Polecats

로큰롤(Rock'n roll)

헤비메틀이 최후의 토대가 된 기본 스타일의 하나이다. 메혹적인 댄스 비트를 지닌 뜨거운 에너지와 업템포의 추가도이기도 하다. 빌리 할리 앤드 히즈 코멧츠, 척 베리, 리틀 리차드 그리고 제리 리 루이스와 같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50년대 중반을 풍미하였다.

ex)롤링 스톤즈(Rolling Stone), 후(Who), Dogs D'Amour, Quireboy

록(rock)

아프터비트를 강조한 흑인 음악에서 출발되어 발전한 음악으로 미국이 본거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출신의 비틀즈가 등장하면서 브리티시음악이 더 사랑받기도 했다.

ex)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룸바(Rumba)

쿠바의 아프리카계 주민들 사이에서 애용된 2/4박자의 댄스리듬.

리듬 앤드 블루스(Rhythm and Blues) 혹은 알앤비(R&B)

흑인의 생활 양식에 맞도록 취입 녹음 된 블루스 보컬이나 밴드 연주의 레코드를 총칭함. 나른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며 가성을 많이 섞어 부르기도 한다.

마치(March)

군대 등. 한 떼의 집단을 질서 있게 이동시키기 위한 걸음걸이에 맞는 행진곡조. 일종의 실용음악.

맘보(Mambo)

룸바에 재즈의 요소를 가미한 아메리카의 댄스곡. 보통8마디의 테마에 4마디의 간주가 따른다.

머지비트(Merseybeat)

이 장르는 로큰 롤과 재즈의 한 형태인 스키플(Skiffle), 컨트리적인 하모니가 조화된 장르로서

ex)블루톤스(Bluetones), 라스(Lars), 캐스트(Cast)

멜로디컬 메틀(Melodical Metal)

헤비메탈적인 리프나 파워대신 유려한 스케일을 중심으로한 멜로디 위주의 사운드를 무기로한 메틀.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위시한 유럽의 메틀밴드들의 음악을 가리킨다. 팝 메틀과 비슷하나 그들보다는 서정적이고 고상하다. 클래식적인 아이템이라던가 복구의 전래 민요 등에서 차용한 우아하고도 귀에 쉽게 들어오는 테마 솔로가 특징이다.

ex)유럽(Europe), 메디슨(Madison)

멜로딕 스피드 메틀(Melodic Speed Metal)

악곡의 스피드는 트래쉬 메틀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좀더 대중적이고 멜로디를 중시하는 음악.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한때 인기를 끌었던 장르이다. 특히 독일 밴드가 많은 것이 특징.

ex)헬로윈(Helloween), 블라인드 가디언(Blind Guardian), 크로밍로즈(Chroming Rose), 감마레이(Gamma Ray), 바이퍼(Viper)

모던락(Modern Rock)

포크음악과 70년대 이글스, 두비브라더스같은 웨스트 코스트 사운드가 그 재료이다. 80년대에 이글스 스타일을 현대판으로 해석한데 이어, 90년대초에 비틀즈 스타일을 현대판으로 표출하여 새로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는데 미국에서는 얼터너티브, 영국에서는 모던락이라 불렀다.
ex)알.이.엠(R.E.M), 너바나(Nirvana), 스매싱 펌킨스(Smashing Pumkins), 펄잼(Pearl Jam), 앨리스 인 체인스(Alice in Chains)

모던 재즈(Modern Jazz)

1950년 이후의 창작 재즈를 말함.

모던 포크(Modern Folk)

전통적인 포크송이 아니라 현대의 싱어나 작곡가가 포크송의 정신에 따라 새로 쓴곡.
ex)밥 딜런

바로크 메탈(Baroque Metal)

기존의 메탈에 클래식얼 어프로치, 특히 바로크 시대의 선법들을 응용했다고해서 '바로크 메탈'로 통칭되는 이것은, 주로 비발디나 요한 세바스찬 바흐 시대의 작법들을 많이 따왔다. 음악적으로 디미니쉬(Diminish) 스케일과 하모닉 마이너(Harmonic Minor) 스케일에 의한 라인 전개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드들은 클래식에서 쓰여지는 것들이다.
ex)잉베이 맘스틴, 임펠리테리(Impellitteri)

발라드(Ballad)

영국의 통속적가요. 사랑을 테마로한 감상적인 러브송.

배기(Baggy)

황량한 인디 현상을 내포하고 있는 음악 부류로서 이펙트 페달과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드러머의 백 비트가 어우러진다. Shoegazing이 중산층을 겨냥한 음악가라고 한다면 배기는 명백히 노동자 계층을 위한 음악 분야이며 동시에 침체된 분야라 할 수 있다.
ex)The Stone Roses, Happy Mondays, Charlantans, Blur

베이 에이리어 트래쉬(Bay Area Thrash)

원래부터 히피문화의 집결지였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만 일대에 일종의 붐이 일어 다수의 트래쉬 밴드들이 등장하였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트래쉬밴드들이 이곳을 고향으로 하고 있어 특별히 이름을 붙였다. 특징은 'Crunch' 라고 불리는 보컬과 테크니컬한 기타연주, 기복이 심한 전개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GACK(L Z ROCKIT), FORBIDDEN, EXODUS, VIO-LENCE, THE ORGANIZATION(DEATH ANGEL)

보사노바(Bossa Nova)

브라질의 춤. 삼바에 재즈 감각을 가미한 것. '재즈삼바'라고도 함. 8비트의 8박리듬 가운데 둘째, 넷째, 일곱째 박을 쉬면 보사노바 리듬이 된다.

부기(Boogie)

가장 단순한 세 개의 코드 배열이 노래를 구성하는 기본을 형성한다. 자주 로큰롤이나 블루스의 리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기본적인 구조는 여러 번 반복되고, 단조로움을 깨기 위해 리드 기타를 중단 시키기도 한다. 종종 제한된 가사의 감각을 발휘하여 4분도 안되는 짧은 곡들을 작곡하기도 한다. 섹스, 마약, 파티 등이 주된 열망의 근원이 된다. 이 용어는 근본적인 재즈에 바탕을 둔 부기 우기(Boogie Woogie)에서 파생되었고, 여덟 마디의 기본적인 구조를 사용하여 피아노 연주를 가미한 형태를 참조하기도 한다.

ex)AC/DC, Foghat, Spider, Status Quo

브레이크 락

브레이크 록은 힙합의 브리티쉬 록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레게, 덩과 결부하여 테크노도 되고 록/팝과 응용되기도 하여 정글/드럼 앤 베이스, 트립 합/엡스 트랙스 힙합 등으로 더욱 확장된 성격을 탄생케 하였다. 특징은 리듬의 자유로움 인데, 음질을 연구하여 폴리 리듬으로 보이거나 통상적인 록과 힙합과 댄스류보다 확실히 응용도가 높고 자극적인 리듬 트랙을 완성하였다

ex)Jesus Jones, EMF, Pop Will It's Inself, 지저스 존스, Meat Beat Manifesto, 4 Hero, Portishead, Goldie, Chemical Brothers, Tricky, Fatboy Slim

브리스톨 사운드(Bristol Sound)

합(Trip Hop)의 다른 이름. 이 장르는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장르이다. 테크노와 엠비언트, 60년대의 블루스, 재즈에 힙합 리듬이 섞인 이 장르는 퇴폐적이고 나른한 분위기로 음악 팬들을 사로 잡으며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ex)트리키(Tricky), Massive Attack, Portishead

브리티시 락/메탈 (British Rock/Metal)

아메리칸 락에 반대 되는 의미로 사운드의 특징은 블루스를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영국적인 감성-촉촉하고 안개비 같은 분위기,또 촌스러운 듯한 완고함과 견고함을 지녀 매니아 취향이라 할 수 있다.

ex)퀸(Queen), 유.에프.오(U.F.O.)

브리티시 모던락(British Modern Rock)

미국 특산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컨트리 음악을 정확히 해체해가면 아일랜드 이면이 특수하게 지니고 있는 켈트 음악을 그 원전으로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브리스톨 사운드는 전쟁이전에는 블랙 아메리칸, 전쟁이후에는 자마йка 이민족의 영향을 받은 면모를 느낄수 있는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다. 거리의 모퉁이에서 이민족은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갔고, 독특한 하이 브리드 사운드를 탄생시켰다.

ex)The Pop Group

브릿팝(Brit Pop)

얼터너티브에서 갈라져나와 멜로디가 간결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바탕으로 모던락의 좀더 발라드한 성격. 90년대 모던락의 복고적 경향과 대중적경향을 동시에 지향한 음악.

ex)블러(Blur), 오아시스(Oasis), 라디오 헤드(Radiohead)

블랙 메탈(Black Metal)

블랙 메탈에서 성경 속의 예수나 하느님이 비판과 타도의 대상이 되는 반면, 사탄은 칭송 받는 존재로 자리한다. 어둠(Black)의 세력인 사탄을 숭배하는 헤비메탈이라고해서 `블랙메탈'로 불리

워 지기 시작했다. 사운드적으로는 어둡고 음산하며 무거운것이 특징이나, 킹 다이아몬드(King Diamond)등의 경우에 건반의 바로크적인 선율에 의한 중세의 신비감까지 표현한 바 있다.
ex)킹 다이아몬드(King Diamond), 베놈(Venom),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

블루스(Blues)

19세기 후반 미국 흑인들 사이에서 형성된 독특한 가요 및 그 형식. 흑인특유의 비극적인 상황에 의해서 느리고, 우울한 것이 특색.

블루스 록/메탈(Blues Rock/Metal)

블루스 록/메탈은 록/메탈 음악에 부드러운 감성을 표현하는 블루스를 접목하여 이루어지면서 60년대 초에 영국을 중심으로 출발했다. 우울함과 숨막힐 정도의 나른하고 느긋한 연주를 기본적인 록/메탈에서 피어나게 하는 느낌을 중시하는 음악.

ex)에릭 클랩튼(Eric Clapton), Jeff Beck, Jimmy Page, Gary Moore, 신촌블루스, 한영애, 스티비 레이 본, 팻 트래버스, 프랭크 마리노

비긴

라틴리듬. 8비트의 셋째 일곱째 박이 빠진 느낌이 나는 리듬.

사이키 델릭(Psychedelic)

에시드 록과 같은뜻. 60~70년대 약물을 애용한 뮤지션들의 음악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다. 되풀이되는 악절과 인도음악에서 영향받은 신비적인 키보드, 거의 무아지경에 빠진 즉흥세션 등이 특징으로 한때 국내에선 록음악을 호칭할 때 무차별적으로 혼용했다.

사타닉 메탈(Satanic Metal)

블랙메탈의 다른 이름.

삼바(Samba)

브라질에 있는 니그로계 주민들의 집단적인 댄스또는 그 곡과 리듬을 가리킴.

샹송(Chanson)

프랑스의 대중 가요. 곡이 예쁘고 가사가 출중한 것이 많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ex)빠뜨리샤 까스

서던 록(Southern Rock)

앨라바마, 조지아, 캐롤라이나. 버지니아를 비롯한 남부 연맹주가 속해있는 지역과 북부 텍사스를 포함한 미국의 남부지방의 로큰롤을 가리킨다. 블루스와 컨트리의 영향이 짙은 지역이라 끈끈하고 투박한 시골적인 그러면서도 웅고집스런 남성적이고 호쾌한 사운드를 창해냈다. 대개 트리플 기타와 키보드가 혼합된 형태를 취하는데, 가사도 내 고향이 최고이고, 잃어 버린 남부인의 긍지를 살리고 정서를 찾자는 심지군은 내용이다.

ex)Lynyrd Skynyrd, Allman Brothers Band, 38 Special, Molly Hatchet, Blackfoot, PrideE & Glory

세미클래식(Semi Classic)

대중 음악과 클래식의 중간 정도로 볼 수 있는 노래 형태.

소울(Soul)

이것은 흑인들의 음악으로 R&B보다 더 강력하게 억눌린 흑인의식은, 얼굴을 있는 데로 찡그리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중간 중간에 내며 부르는 SHOUT창법이란 새로운 발성법을 만들어내 이 창법을 이용해 노래하는 소울이 나오게 되었다.

ex)Blue Eyed Soul, 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 Aretha Franklin

쇼크 록(Shock Rock)

'시더 록', '호러 록' 의 다른 이름. 헤비메탈의 이 형태는 음반을 수반하기 위한 강한 시각적 요소를 접목시키고 있다. 스크리밍 재이 호킨스에 의해 개척되었으며, 스크리미 서취 경에 의해 영구식으로 변했고, 70년대 초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공포영화의 그래픽과 헤비메탈과 로큰롤을 결합시켰다. 그들의 무대는 교수형,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는 장면, 전기의자에서 처형하는 모습등에 의한 가짜 연기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혹자는 '싸구려 서커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하기도 한다.

ex)앨리스 쿠퍼(Alice Cooper), GWAR, Lizz Borden 등이 있다.

슈게이징(Shoegazing)

드림 팝이라고 불림. 이 장르는 몽롱한 분위기와 퇴폐적인 나른함을 특징으로 한다. 노이즈와 멜로디의 결합이라는 말로 설명된다.

ex)My Blood Valentine

스카

레게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R&B의 영향을 받은 비트. 자메이카에서 생겨나 영국, 미국등으로 전해졌는데 애프터 비트에 액센트를 두는 싱코페이션을 리듬 비트에 배치하고 있다. 원래 스카는 재즈적인 기반이 있는 음악인데 불구하고 현재는 상업적인 변질로 인해, 재즈적인 스카는 찾아볼 수 없고 락과 팝, 댄스음악과 결합된 스카 락, 스카 팝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ex)프린스 버스터(Prince Buster), 지미 클리프(Jimmy Cliff), The Skatalites, The Specials, Selecter, Madness

스칸디나비안 메탈(Scandinavian Metal)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위치한 스칸디나비아반도 출신 밴드와 메탈을 가리킨다. 우아한 멜로디, 서정적인 사운드가 특징이고, 유러피언 메탈에서 떨어져 나왔다. 한무더기로 지칭하여 부르기도 하지만 장르도 많고 밴드의 특징도 천차만별이다.

ex)유럽(Europe), Entombed, Swedish, Pretty Maids, T.N.T., Hanoi Rocks, Mercyful Fate, King Diamond

스피드 메탈(Speed Metal)

트래쉬의 또다른 이름. 트래쉬라는 이름을 얻기전 매우 빠른 속도에 놀란 평론가들이 붙인 명칭이다.

시더 록/메탈(Theater Rock/Metal)

'쇼크 록', '호러 록' 의 다른 이름. 헤비메탈의 이 형태는 음반을 수반하기 위한 강한 시각적 요소를 접목시키고 있다. 스크리밍 재이 호킨스에 의해 개척되었으며, 스크리미 서취 경에 의해 영구식으로 변했고, 70년대 초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공포영화의 그래픽과 헤비메탈과 로큰롤을 결합시켰다. 그들의 무대는 교수형,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는 장면, 전기의자에서 처

형하는 모습등에 의한 가짜 연기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혹자는 '싸구려 서커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하기도 한다.

ex)앨리스 쿠퍼, W.A.S.P., Lizzy Borden

심포닉 메탈(Symphonic Metal)

프로그레시브 메탈과 비슷한 뜻. 1,2,3부로 나누어지거나 서주~종주로 이어지는등의 전개를 가진 수준높은 메탈을 일컫는다. 대개 하나의 줄거리를 따라가는 컨셉트 앨범의 형식을 취하며 기술적으로도 뛰어나다.

ex)러쉬(Rush), Queensr Che, 드림시어터(Dream Theatre), 새도우 갤러리(Shadow Gallery), Savatage, Mekong Delta

신디 팝(Synth Pop)

신디 팝이 뜻하는 바는 즉 OMD를 의미한다고 할 정도로 OMD는 이 장르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전기타자수들처럼 쇠잔해져 가고 있는 이 분야는 현재 샘플러의 활동만이 눈에 보인다.

ex)야주(Yazoo), Depeche Mode, Human League, Erasure, Cars, Gary Numan

C.M송(Commercial Message Song)

광고음악. 20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반복효과 다른패턴(인쇄, 필름)과의 조화 그리고 많은 내용을 함축성있게 전달해야하는 특수성을 안고 있다.

아메리칸 록(American Rock)

미국의 록이란 뜻으로 British Rock에 대칭되어 사용되는 단어이다. 다시 말해 매니어 지향적인 브리티쉬 록에 비해 라디오와 다수의 팬층을 겨냥한 멜로디와 팝적인 센스를 가미한 메이저 취향의 로큰롤을 의미한다. 블루스에 기초한 영국과는 달리 로큰롤적인 색채가 강한 로큰롤이란 뜻도 있으며 지역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다시 세분화되어 이스트코스트 사운드, 웨스트코스트 사운드, 중서부 록, 서던 록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ex)브루스 스프링스틴, R.E.O.SPEED WAGO N, 저니(Journey),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Grand Funk Railroad)

아방가르드 록/메탈(Avantgarde Rock/Metal)

문자 그대로 전위적인 록/메탈이란 뜻으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철학과 진보적인 사운드를 지닌 메탈 사운드를 가리 킨다. 프로그레시브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둘의 차이점은 아방가르드 쪽이 보다 실험적이라는데 있다.

ex)벨벳 언더그라운드(Velvet Underground), Celtic Frost

아이리시 록

아일랜드 특유의 사운드를 록과 재즈 등과 크로스오버 시킨 독특한 스타일의 록음악. 브리티시와 비슷한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묘하고 신비스런 매력을 느낄 수 있다.

ex)크랜베리스(The Cranberries), The Pogues, 시네이드 오코너, 유투(U2), Horslips, Moving Hearts, Thin Lizzy

아트 록(Art Rock)

프로그레시브 록과 같은 뜻.

알앤비(R&B)

흑인의 생활 양식에 맞도록 취입 녹음 된 블루스 보컬이나 밴드 연주의 레코드를 총칭함. 오늘날 대중음악에서 대부분의 음악에 삽입이 되고 있다. 음이 부드럽고 나른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며 보컬은 바이브레이션과 가성을 돋보이게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ex) Boyz II Men, All 4 One

애시드 록(Acid Rock)

사이키델릭과 같은 뜻. 약물을 매개로 한 로큰롤로서 60~70년대 많이 유행했다. 히피(Hippie) 문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며 힌두이즘이 추구하는 고도의 정신적 희열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서양인들이 도에 이르는 저열한 한 형태라는 의견도 있다.

ex) 제퍼슨 에어플레인(Jefferson Airplane), 그레이트풀 데드(Grateful Dead)

애시드 재즈(Acid Jazz)

이것은 장르의 구분이 없어지고, 복합된 새로운 영역이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지금의 혼란을 집약해준 대표적인 장르라 할 수 있다. 정통재즈에서 밀려난 뮤지션들이 싸구려 바(Acid House)에서 밤새도록 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여 연주하곤 했었는데, 이들이 오늘날 Acid Jazz의 원류가 되어 버렸다. 애시드 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지루할 정도의 반복이다. 음악적으론 이름과는 틀리게 재즈의 한 부류라기보다 랩이나 트립 합 또는 몽환적인 느낌의 Psyche Sound에 가깝죠. 하지만 재즈의 본질적인 면과 연주하는 악기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리듬상의 파격을 줬기에 Acid Jazz라 부른다.

앰비언트(Ambient)

70년대 만들어진 장르로써 90년대 들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거의 명상음악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음의 변화가 적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일관하는데 이런 사운드는 청취자의 취향에의 잠재 의식 속의 어두운 일면과 청자들의 청력을 몇 시간 동안 차지하게 만든다.

ex)브라이언 이노(Brian Eno), Aphex Twin, Orb

얼터너티브(Alternative)

포크음악과 70년대 이글스, 두비브라더스같은 웨스트 코스트 사운드가 그 재료이다. 80년대에 이글스 스타일을 현대판으로 해석한데 이어, 90년대초에 비틀즈 스타일을 현대판으로 표출하여 새로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얼터너티브, 영국에서는 모던락이라 불렀다. 혹은 그런지 록(Grunge Rock) 이라고도 한다.

ex)알.이.엠(R.E.M), 오아시스(Oasis), 너바나(Nirvana), 스매싱 펌킨스(Smashing Pumpkins), 펄잼(Pearl Jam), 앨리스 인 체인스(Alice in Chains), 사운드 가든(Sound Garden)

에이 오 알(AOR)

AOR이란 청소년들보다는 성인들에게 표적을 두었다. AOR은 종종 고음으로 조정된, 완벽한 음조의 보컬의 하모니, 경쾌한 기타 솜씨 그리고 키보드의 사용 등으로 이루어진다. 눈속임과 이미지는 극소화시키고 음악적인 기교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강조하여 표현한다. 배열이나 생산적인 테크닉은 매우 정교하다.

ex)Babys, 보스턴(Boston), 캔사스(Kansas), 알.이.오(R.E.O), Speedwagon, 토토(Toto)

엘에이 메탈(L.A. Metal)

80년대 초반 미국 L.A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감각적, 쾌락적인 로큰롤 사운드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몇몇 굵직한 밴드들이 전면에 부상하며 L.A메탈로서 그 영역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대부분 경쾌한 8비트로 성(Sex)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 초기의 L.A 메탈은 '쓰리코드'

패턴의 단순한 진행이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연주에도 충실한 실력과 밴드들이 나와 현재에는 가장 대중화된 헤비메틀이라 할 수 있다.

ex)머틀리 크루(Matley Crew), 래트(Ratt), L.A.건스

영화음악(Original Sound Track)

음향효과가 아닌 '음악'이란 개념이 영화에서 일반화된 계기는 찰리 채플린이 직접 영화삽입곡에 정성을 들이면서부터라고 본다. 언젠가부터 영화음악이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대이상이었 고, 연출의 한 부분까지 되었다. 1940년대에는 재즈가, 50-70년대에는 클래식이, 70-80년대에는 기존의 클래식곡을 삽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연주곡을 오케스트라적인 편곡으로 창작하여 사용하였다. 또 80년대 이후로는 POP가수와 Rock그룹의 음악이 주로 영화의 분위기를 돕는 '음악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현재에까지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한 뮤지션이 영화 한편을 맡는 경우('Rush', 'Purple Rain')와 여러 뮤지션이 한 곡씩 참가하여 하나의 Sound Track을 완성하는 종류가 있다.

ex)John Williams, Hans Zimmer, Ennio Moricone, 에릭클랩튼의 'Tears In Heaven"

오 에스 티(O.S.T)

영화음악. Original sound Track 의 줄임말

웨스트 코스트 사운드(West Coast Sound)

이스트코스트 사운드와는 대칭되는 말로 캘리포니아-샌프란시스코를 근거지로한 록 밴드들을 일컫는다.

ex)제퍼슨 에어플랜(Jefferson Airplane), 제퍼슨 스타쉽(Jefferson Starship), Grayeful Dead, Iron Butterfly, 도어즈(Doors), 이글스(Eagles)

유러피언메탈(European Metal)

이 장르는 80년대들어 나타난 용어이다. 70년대말, 유럽각지에서 서서히 메탈밴드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영.미와는 달리 서정적인 멜로디와 클래식적인 전개의 발라드가 주류를 이루었고, 일본과 한국에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요사이엔 들어와선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이스트 코스트 사운드(East Coast Sound)

미국의 뉴욕과 보스턴을 중심으로한 밴드와 그 사운드. 로큰롤을 기반으로한 매우 정통적인 것인데, 대도시의 광기라던가 소외감을 다루기도 하였다. 최근에와서는 단순히 동부 출신임을 나타내는 증표로 사용되는 경향이다.

ex)브루스 스프링스틴, 본조비(Bon Jovi), 익스트림(Extreme), Britny Fox, 파이어하우스(Firehouse). 에어로 스미스(Aerosmith)

인더스트리얼(Industrial)

전자적인 음향장치들을 이용하여 사이키델릭한 요소를 극대화 시킨 사운드. 비교적 신진세력이며 헤비메틀과 테크노 음악을 접목한 장르이다. 컴퓨터 음악과 각종 이펙터, 샘플링을 이용한 특유의 인공적인 사운드로 주목을 받는다.

ex)나인 인치 네일스(Nine Inch Neils), 미니스트레이(Ministrey), 피어팩토리(Fear Factory), 프로디지(Prodigy)

인디 록(Indie Rock)

펑크 록이 인디 레이블에서 발표되면서 대규모 레코드사나 거창한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은 7인

치 레코드의 붐이 일기 시작했다. 이런 소규모 레코드 회사들이 인디 록의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인디 록은 어떤 형태로든 메이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인디 록이라고 할 수 없다. 요즘의 인디 라는 것은 찢어진 청바지와 가죽 옷을 몇년동안 입고 싸구려 맥주를 플라스틱 컵에 마시는 사람들을 말한다.

ex)대표 밴드를 꼽는다는 것이 무의미하나 어떤 잡지에서는 '스톤 로지스' 를 최고로 꼽고 있다.

인터렉츄얼 트래쉬(Intellectual Thrash)

이것은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 메가데스라는 일개 밴드의 사운드를 얘기한다. 재즈와 퓨전에서 어프로치를 구한 초기 메가데스의 레코드 회사 선전문구였는데, 장본인인 밴드도 만족한 듯 스스로 없이 사용했다.

일렉트로닉 록(Electronic Rock)

70년대 중반에 두드러진 움직임으로, 록음악에서 기술적이고 전기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성장을 보였던 음악 조류이다. 특별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모든 음역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신디사이저는 그들의 기본이 되었다. 종종 작품들은 일렉트로닉한 허밍, 기계잡음, 비명소리로 구성되는 긴 약기적인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그 기원은 미니멀리스트, 아방가르드 대개는 독일에서 비롯된다.

ex)캔(Can), Tangerine Dream, Trace

재즈(Jazz)

재즈의 출발은 흑인 노예에게서 찾을수 있다. 그것은 처절한 소외와 아픔을 이기고자 자연스레 나왔기에, 자유로운 리듬과 즉흥성을 재즈의 가장큰 특징으로 꼽을수 있다. 또 여기에 유럽 백인 이주민들의 음악적 요소가 결합되어 완성된 것이 오늘날의 재즈다. 재즈는 20세기초 처음 대중을 향해 소개 되었는데, 당시는 래그타임 피아노와 빅밴드에 보컬이 함께한 형태로 5명 또는 7명의 그룹형식이었다. 그러나 오늘 날의 재즈는 대부분이 연주로만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재즈 보컬이 개인적인 인기를 힘입어 솔로로 독립, 팝 가수로의 전환등으로 인한 것이다.

ex)Louis Armstrong, Miles Davis, Thlfionious Monk, John Coltranf, Chick Corea

재즈 록(Jazz Rock)

하드 록의 윤곽안에서 재즈적인 스타일의 각색과 뉘앙스를 풍기는 음악을 말한다. 작품들은 길고 다양한 특색을 나타내며, 때때로 제멋대로의 약기의 솔로 연주가 끼어 있다. 게다가 사운드는 스트링, 브라이스, 키보드 등의 약기가 보태어져 웅장해지기도 한다.

ex)Brand X, Fire Merchants, Mahivishnu Orchestra, Baker Gurvitz Army

재즈 삼바(Jazz Samba)

보사노바의 다른이름.

저먼 메틀(German Metal)

독일의 메틀이라는 지역적 의미와 독일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메틀의 의미로 나뉘어진다. 저먼 메틀은 가벼운 팝 메틀에서 과격한 데스에 이르기까지 그 기반이 매우 넓다. 멜로디가 뛰어나고 보컬보다는 연주파트에서 빛을 발한다.

ex)스콜피온(Scorpions), 엑셉트(Accept), 헬로윈(Helloween), 감마레이(Gamma Ray)

정글(Jungle)

계속되는 음악의 발전은 특히 댄스 음악의 분야에서 그 강세가 돋보이는데 레이블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인 정글은 BPM 250 이상의 극단적인 빠름과 일정한 포인트음의 딜레이 효과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중요 장르로 자리잡은 만큼 그 파급 속도가 빠르다.

ex)Goldie

정통 메탈(Orthodox Metal)

하드록의 본류를 계승한 정통파이다. 탄탄한 연주력과 꾸밈없고 헤비한 사운드, 리프중심의 스피디한 악곡 구성이 특징이다.

ex)오지 오스본(Ozzy Osbourne), 아이언 메이든(Iron Maiden)

제패니스 메탈(Japanese Metal)

일본의 메탈이라는 지역적 의미. 주로 소비자에 머물렀던 그들은 서서히 영국이나 미국으로 진출하여, 혹은 일본 국내에서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왔다.

ex)Loudness, E.Z.O, Vow Wow, 聖鎖魔 II (SEIKIMA II), Outrage, X-JAPAN

차차차(Cha Cha Cha)

2/4 또는 4/4박자의 경쾌한 라틴계 춤. 대중 가요 리듬의 한 종류. mambo에서 갈라져 나옴.

칼립소(Calypso)

트리니다드 섬에서 발달한 흑인의 노래. 원래는 노예들이 아프리카로부터 가지고 온 노동가의 흐름을 간직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래의 칼립소는 일상 생활이나 자신의 주장을, 때로는 풍자를 섞어 부르는 자작의 이야기인데, 가벼운 파퓰러송도 만들어 지게 되었다. 2박자의 탄력있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

캐롤(Carol)

크리스마스때 불리는 찬미의 노래. 주로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임.

커메셜 메탈(Commercial Metal)

팝 메탈과 같은 뜻. 메탈 본래의 이미지인 언더그라운드·매니아적인 취향대신 보다 대중을 의식한 공감가는 보편적인 사운드를 연주하는 메이저 취향의 밴드들을 일컫는다. L.A .메탈이 등장하면서 거의 동시에 나타났는데 주로 발라드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이 특징으로 엄두도 못내왔던 '빌보드 차트'에도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ex)데프 레퍼드(Def Leppard), 본 조비(Bon Jovi), 건스 앤 로지스(Guns N' Roses), 스틸하트(Steelheart), 파이어 하우스(Firehouse), 신데렐라(Cinderella)

컨트리(Country)

미국 중부 산악지대의 농민이나 산 사람들 사이에서 전래된 민요. 또는 그 계열의 가요.

ex)존 덴버

컨트리 엔드 웨스턴(Country and Western)

미국 중부 산악지대의 민요 및 그 계열의 가요를 포함한 컨트리 뮤직과 미국 서부의 카우보이 송 및 동계열의 가요를 일괄하여 말함.

콘티넨탈 탱고(Continental Tango)

아르헨티나의 탱고가 유럽에 전해지면서 유럽에 맞는 탱고로 변함. 이것을 아르헨티나의 탱고와 구별하여 콘티넨탈 탱고라 한다.

쿨 재즈(Cool Jazz)

재즈를 시대별로 크게 전기의 Hot Jazz와 후기의 Cool Jazz로 나누는데, 핫 재즈는 초기 스윙, 밥의 격렬한 연주력, 뜨거운 감정의 폭발로 일컬어지며, 쿨 재즈는 핫 재즈에 대한 식상, 내지는 변혁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서 핫 재즈 보다 편안하고, 이지적이며, 도회적인 세련됨이 돋보이는 장르이다.

ex) Miles Davis, Chet Baker

크로스오버(Crossover)

원래 재즈에서 쓰이던 말이었는데, 이것저것의 요소를 조금씩 가져다가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Alternative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까지는 주로 이 용어가 쓰였다.

ex) 레드 핫 칠리 페퍼스(Red Hot Chili Peppers), 익스트림(Extreme), 화이트 좀비(White Zombie)

탱고(Tango)

아르헨티나의 서민들 사이에서 불리던 2/4박자의 민속음악. 또는 그 춤. 가요에 있어서의 리듬의 일종.

테크노(Techno)

크라프트베르크의 영향하에 Detroit's Derrick May, Kevin Saunderson과 Juan Atkins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악이다. 이 장르는 시카고의 하우스 사운드 보다도 더 최면적이며 반복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요즘 거의 모든 전자 음악에 이용되어지고 있는 음악의 분야이며,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는 음악장르이다.

ex) 666, 이정현, 2 Unlimited

테크니컬 메탈(Technical Metal)

각 세션 모두가 개인기에 중점을 두는 스타일을 통칭한다. 리듬 기타와 리드 기타간의 확실한 구분을 두지 않고 리듬 기타가 리드 솔로적인 화려한 리프와 배킹을 펼친다. 때문에 테크니컬 메탈에서는 특정 리프가 계속 반복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험난한 진행을 볼 수 있다.

ex) 익스트림(Extreme), 미스터 빅(Mr. Big), 스티브 바이(Steve Vai)

트래쉬 메탈(Thrash Metal) 혹은 스래쉬 메탈

핑크록과 NWOBHM시대의 모터헤드(Motorhead), 베놈(Venom) 등을 시초로 하여 언더그라운드에서 싹튼 장르이다. 고속의 스피드를 주무기로 하며 과격하고 사운드와 가사 내용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형 트래쉬 밴드들의 사운드 대중화와 데스메탈의 급부상으로 인해 지금은 거의 사장되어가는 실태이다.

ex) 메탈리카(Metallica), 메가데쓰(Megadeth), 슬레이어(Slayer), 세풀투라(Sepultura)

트랜스(Trance)

엔지니어 혹은 컴퓨터 음악을 하던 이들이 클럽에서 당시 유행하던 테크노 같은 음악보다 좀더 공격적인 음악을 만들어낸 것이 시초가 되었던 이 장르는 듣는 와중에 사람의 정신을 빼놓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ex) Chemical Brothers, 808 State

트립 합(Trip Hop)

흔히 브리스톨 사운드로 불리우는 이 장르는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장르이다. 테크노와 엠비언트, 60년대의 블루스, 재즈에 힙합 리듬이 섞인 이 장르는 퇴폐적이고 나른한 분위기로 음악 팬들을 사로 잡으며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ex)트리키(Tricky), Massive Attack, Postishead

파워 메탈(Power Metal)

정통메탈과 스래쉬메탈의 중간정도에 위치한 장르라 말할수 있겠다. 남성적인 호쾌한 보컬과 고출력의 힘있는 사운드가 특징이다.

ex)메노워(Manowar), 판테라(Pantera)

파퐁러 송(Popular Song) , 팝송(Pop-Song), 팝(Pop), 팝스(Pops)

대중에게 받아 들여지기 쉬운 음악으로, 주로 영국, 미국의 대중가요.

ex)엘튼 존(Elton John),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팝 메탈(Pop Metal)

커메셜 메탈(Commercial Metal)과 같은 뜻. 팝이라 하기에는 비트가 좀 강하고 그렇다고 해서 메탈로 보기에 좀 순한 록을 표현하기 애매해 '팝 적인 메탈' 또는 '메탈적인 형태의 팝'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용어가 '팝 메탈'로 굳어졌다. 이러한 애매한 용어는 80년대 초에서 중반에 몇몇 밴드들의 놀라운 상업적 성공으로 인해 현재에는 역시 구체적인 장르로서 인정받고 있다.

ex)데프 레퍼드(Def Leppard), 본 조비(Bon Jovi), 건스 앤 로지스(Guns N' Roses), 스틸하트(Steelheart), 파이어 하우스(Firehouse), 신데렐라(Cinderella)

퍼브 록(Pub Rock)

주로 펑크 록 등장 이전인 70년대 전반에 클럽의 소규모 형태인 퍼브(Pub)를 중심으로 충실한 라이브 활동을 했던 밴드를 일컫는 말이라서 음악 장르로서는 과거의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퍼브에서 연주하는 뮤지션이라면 누구라도 퍼브록커이며, 록에서 리듬 앤 블루스, 컨트리까지의 음악 장르를 불문하고 펼쳐졌다.

ex)브리즐린 슈워츠, 독스 디럭스

펌프록(Pomp Rock)

다이내믹한 편곡과 기교적인 향상으로 궤변적이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록 음악을 하는 부류에게 적용되는 용어이다. 이 장르는 대개 길며, 클래식의 영향을 받는 비법을 갖춘 작품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수준 높은 음악가 정신, 뛰어나고 완벽한 보컬의 조화, 그리고 음악의 대가들이 펼치는 악기의 연주는 이 스타일의 생기있는 구성요소이다.

ex)Status Quo, Whitesnake 등이 있다.

펑크(Punk)

70년대 중반부터 뉴욕과 런던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과격한 락음악. 록의 반항정신과 정치성이 가장 강조된 장르로서 좌충우돌격의 단순한 사운드와 기존문화를 거부하는 반항적인 이미지로 헤비 메탈과 특히 얼터너티브 록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80년대 초반에 일어난 뉴웨이브에 묻혀 버렸으나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네오펑크형태로 소생했다.

ex)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 크래쉬(Clash), 이기 팝(Iggy Pop), 오프스프링(Off Spring), 배드 릴리전(Bad Religion), 페니와이즈(Pennywise)

펑키 메탈(Funky Metal)

이 장르는 기존의 메탈포맷에 업 템포와 리드미컬한 진행을 하고 있다. 특히 베이스리스트의 역량이 돋보이는데, 그루브한 감각을 가진 역동적인 펑키 메탈은 세련된 도회적 매력을 준다.

ex)Living Colour, Bang Tango, Primus

포크 송(Folk Song)

민요. 영,미에 있어서 전해 내려오는 작자 미상의 옛 민요. 노동자나 카우보이등의 서민들의 생활 정서를 노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즘은 '모던 포크송'도 통틀어 '포크송'이라 부른다.

ex)위버스 그룹, 우디거리스

포크 록(Folk Rock)

외관상으로는 매우 이상한 두개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동료가 섞여 있는 듯한 크로스오버 스타일이다. 포크의 색깔은 메탈적인 문장의 완전한 음역을 사용함으로써 변형되고 또한 플루우트, 바이올린, 만돌린, 바순을 사용하여 증음시킬 수 있다.

ex)Gentle Giant, Gryphon, Horslips, Jethro Tull, Skyclad

폭스 트로트(Fox Trot)

경쾌하고 약간 빠른 듯한 4/4박자의 노래. 또는 그 노래에 맞추어 추는 춤. 가요 리듬의 하나.

폴카(Polka)

빠른 2박자의 리듬에 특징이 있는 보헤미아의 무곡. 1830년경 보헤미아의 농촌에서 발생했지만, 도시화하여 사교댄스로 유럽에 퍼졌다. 스메타나의 가곡 등도 채택되었다.

퓨전 재즈(FUSION JAZZ)

퓨전 재즈는 정통 재즈가 오랜 세월을 지나며 발전된, 약간은 대중적인 재즈를 말한다. 펑키한 리듬 내지는 이지 리스닝 멜로디 도입, 그리고 키보드의 역할이 커지면서 전위적인 요소를 내기도 하는 것이 융합된 재즈, 곧 퓨전 재즈이다. 다분히 대중적이고, 시대조류에 따른 문화적 편승이 없진 않지만, 재즈라는 커다란 장르를 일반인들에게 '어렵지 않게' 일깨워준 효자노릇을 한 것으로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80-90년대 널리 알려진 퓨전 재즈는 현재 일고 있는 에시드 재즈와 전시대의 쿨 재즈의 중간자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음악이다.

ex)MILES DAVIS, LEE RITENOUR, LARRY CARLTON, PAT METHENY, CHICK COREA 봄 여름 가을 겨울

프로그레시브 록(Progressive Rock)

아트록과 같은 뜻. 실험적이며 전위적이고 악곡의 예술성과 앨범의 컨셉트성을 중요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주면에서는 특히 키보드, 신서사이저 파트가 강조되는데 유러피안 프로그레시브 록의 경우에는 바이올린, 피아노 등의 악기도 가미되어 클래식과 재즈, 록을 합친 음악이라고도 한다.

ex)핑크 플로이드(Pink Floyd), 제네시스(Genesis), 킹 크림슨(King Crimson), 뉴트롤스(New Trolls),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EL&P)

프로그레시브 메탈(Progressive Metal)

심포닉 메탈과 같은 뜻. 마치 한편의 클래식 교향곡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복잡한 구성과 기복이 심한 곡전개를 보여줌으로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8-10분 이상의 긴 곡이 주를 이루며, 테마에 대

한 주제 의식이 강해 앨범 전체를 같은 주제에 할애하는 컨셉트 지향의 작법도 자주 시도한다.
ex)드림 시어터(Dream Theater), 마젤란(magellan)

플라멩고(Flamenco)

스페인 남부 안달루치아 지방의 민속 음악 또는 댄스로, 집시의 요소가 짙음.

하드 록(Hard Rock)

헤비메틀의 전신. 양자간에 큰 차이는 없으며 다만 헤비메틀이란 음악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80년대 이후의 그룹들은 헤비메틀로, 그 이전은 하드록으로 구분할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와 크림(Cream)등을 위시하여 록큰롤과 블루스에 바탕을둔 일렉트릭 기타중심의 헤비사운드의 음악을 하드록이라 한다.

ex)레드 제플린(Led Zeppelin), 딥퍼플(Deep Purple), AC/DC, 키스(Kiss), 에어로스미스(Aerosmith), 반헬렌(Van Halen)

하드 코어(Hard Core)

하드 코어는 펑크와 스래쉬가 합쳐진 형태로, 스피드나 분위기등에서 반항적이며 조소적인 면을 보여준다. 80년대 후 반경 미국에서 급속하게 유행하여 현재에는 헤비메틀계에서 무시못할 또 하나의 분파를 형성하고 있다. 리프와 리듬 등에서는 펑크적인 연주와 스래쉬의 거칠고 공격적인 스피드를 채용하고 보컬은 야유가 섞인 랩 창법으로 노래한다. 뛰어난 연주력보다는 리듬이나 보컬 등에서 나타나는 반항성과 특유의 이미지 또는분위기가 강하게 어필하는 음악을 추구한다.

ex)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Rage Against Machine), 수어사이드얼 텐덴시즈(Suicidal Tendencies), 바이오 해자드(Biohazard)

하드코어 펑크(Hardcore Punk)

이 장르의 시초는 77년 스토크온 토렌트 결성을 모태로한 디스체야지의 앨범 'Why'부터 였으나 본격적인 형성은 80년대 중반 메틀 사운드가 가미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하드코어 펑크는 사운드의 극단적인 요소로 인해 더 이상 자리매김 하지 못하였다.

ex)디스체야지, G.B.H., 카오스 UK, Amebix, Conflict, 네이팜 데스, 스나이프, Heresy, Extreme Noise Terror

행진곡(March)

한 떼의 집단을 질러 있게 움직이기 위하여 걸음걸이에 맞게 작곡 된 노래.

헤비 메탈(Heavy Metal)

강한 금속성을 느끼게 하는 록. 기타지향의 록으로써 이론적으로는 하드록의 흐름을 지니고 있다. 1970년대 중엽에 헤비메탈 밴드가 보다궤변적인 음악을 시도하자 이말은 거의 사라져 버렸으나 최근 다시 출현하고 있다.

ex)블랙사바스(Black Sabbath), 주다스 프리스트(Judas Priest)

호러 록(Horror Rock)

'쇼크 록', '시더 록'의 다른 이름. 헤비메틀의 이 형태는 음반을 수반하기 위한 강한 시각적 요소를 접목시키고 있다. 스크리밍 재이 호킨스에 의해 개척되었으며, 스크리미 서취 경에 의해 영구식으로 변했고, 70년대 초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공포영화의 그래픽과 헤비메틀과 로큰롤을 결합시켰다. 그들의 무대는 교수형,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는 장면, 전기의자에서 처형하는 모습등에 의한 가짜 연기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혹자는 '싸구려 서커스'에 지나지 않는다

는 비난을 하기도 한다.

ex)앨리스 쿠퍼(Alice Cooper), GWAR, Lizz Borden

흥키통키(Honky Tonk)

서민주점을 배경으로한 소박한 재즈 음악.

홀라(Hulla)

하와이의 전통적인 춤 또는 그에 따른 음악. 한 사람이 노래, 악기연주, 춤의 3역을 맡는 경우가 있고, 더러 춤만은 다른 사람이 맡는 수가 있다.

흑인 영가(Negro Spirituals)

흑인 노예 사이에서 불리던 그리스도 신앙적인 민요.

힐빌리(Hillbilly)

미국 중부 산악 지방의 전래 민요. 또는 사투리가 섞인 창법의 노래.

힙합(Hip Hop)

힙합의 본 의미는 60년대부터 생겨난 사회 저항의식, 또 자유로움과 그 외 수 많은 요소가 합쳐진 일종의 흑인 문화 현상을 두고 생겨난 단어이다. 오늘날의 힙합은 R&B와 랩이 혼합된 음악과 제 몸보다 몇배는 큰 옷을 입고 흐느적 거리며 추는 브레이크 댄스등을 일컫는다.

[CLASSIC]

교향곡(Symphony)

'심포니'와 '교향악'과 같은 뜻이다. 이탈리아에서 몬테베르디가 오페라를 시작하기전에 그리 길지 않은 3악장가량의 관현악곡을 선사하였는데 이것이 심포니아(Sinfonia)의 시초가 된다. 그후 하이든이 가극의 예속물로 표현되는 심포니아를 독립된 멋진 오케스트라로 확대 발전시켰으며 이 음악 양식이 바로 심포니(Symphony) 였다. 하이든을 심포니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이든은 교향곡 스타일을 확립 시켰으며 공적은 음악사에 길이 남는다. 고전주의 개념으로 '교향곡을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도록 소나타형식으로 만들어진 곡'이다. 무도적인 미뉴에트를 두고 제시부가 한번만 지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기악곡

특징은 성악형식을 모체로 하여 만들어 졌으며 작곡 기법을 성가곡에서 차용하였다. 성악곡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된 것으로 특정한 형식이 없고 그 기법은 '토카타'라는 대규모 악곡으로 발전하였다. 바로크시대에 기악곡이 이룩한 큰 공적으로 '푸가'를 꼽을 수 있으며 j. s 바하의 '음악의 헌정' '푸가의 기법'등에서 푸가의 극치를 맞볼 수 있다.

성악

노래는 자음을 내지 않고 성대만 울리게 하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말보다도 먼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세시대에는 성가대에 여자가 노래한다는 것이 상상하기도하기 힘들었으며 미성을 가진 소년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변성기가 오기 전에 남성의 상징을 거세하여 미성을 지속 시킨다.

이 남성 가수들을 ‘카스트라토’ 라고 하였으며 지금은 금지되어 여성이 이 음역을 노래하게 되었다. 상송은 프랑스, 칸초네는 이탈리아, 리트는 독일에서의 가곡을 뜻하는 언어로써 통용 되었다. 나라별로 작곡가를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가곡의 왕” 슈베르트,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후고볼프와 구스타프 말리, 슈트라우스등이 있으며 프랑스의 작곡가로는 가브리엘 포레, 뒤파르크, 드뷔시, 라벨, 미요와 프랑크, 메시앙이 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로는 토스티, 레스피기, 피체, 등이 있으며 러시아의 작곡가로는 무소그르스키, 차이코프스키, 스트라빈스키, 프로코피예프, 쇼스타비치, 등이 있다. 슬라브족의 작곡가로는 드보라작의 신세계 교향곡이 있으며 북유럽 작곡가로는 노르웨이의 그리그, 영국에는 엘리, 딜리어스, 브리튼, 등이 활약하였고 미국에는 스테펜 포스터, 맥더웰, 거쉬인의 재즈송이 유명하다. 한국의 성악가로는 홍혜경, 조수미, 최현수 등이 있다.

세레나데(Serenade)

소야곡. 밤에 집 밖에서 연주되거나 노래되는 여러 종류의 음악.

심포니(Symphony)

'교향곡', '교향악'과 같은 뜻이다. 이탈리아에서 몬테베르디가 오페라를 시작하기전에 그리 길지 않은 3악장 가량의 관현악곡을 선사하였는데 이것이 심포니아(Sinfonia)의 시초가 된다. 그후 하이든이 가곡의 예속물로 표현되는 심포니아를 독립된 멋진 오케스트라로 확대 발전시켰으며 이 음악 양식이 바로 심포니(Symphony)였다. 하이든을 심포니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이든은 교향곡 스타일을 확립 시켰으며 공적은 음악사에 길이 남는다. 고전주의 개념으로 '교향곡을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도록 소나타형식으로 만들어진 곡'이다. 무도적인 미뉴에트를 두고 제시부가 한번만 지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실내악

회화의 극치를 이룬 고관 대작들의 실내, 그것이 허식일 망정 무엇인가 지적 분위기에 감싸인 환경 속에서 거행되는 음악행사 였기에 당연히 거칠고 야한 것은 배격되었고 극히 세련된 것만 받아들여졌다. 현악 4중주는 독주와 조화를 겸비하는 실내악의 이상을 잘 표출할 수 있어 많이 사용되어 졌다. 피아노가 포함된 곡들도 실내악에서 절대로 뺄 수 없으며 그 중에서도 피아노 3중주가 가장 중심이 된다.

오페라

오페라는 무대위에서 대사를 성악으로 노래하며, 연극을 하는 음악극을 뜻한다. 1597년 르네상스 말기 이탈리아 피렌체 바르의 백작 궁정에서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한 ‘다프레’라는 음악극을 한 것이 오페라의 시초가 된다.

왈츠(Waltz)

3/4박자의 원무곡.

협주곡

독주악기가 많은 인원의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연주한다는 뜻으로 독주자의 우수한 연주기교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같은 합주협주곡을 독주협주곡으로 부르기도 한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협주곡은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 기본 개념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연주기교의 화려한 전개보다 한 차원 깊은 음악을 표출하려는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